

미국 시멘트 수요, 금년 1억 1,500만톤에 달할 듯
(2000. 7. 3)

미국의 시멘트 수요가 '98년에 1억톤을 돌파한 이후 '99년에도 1억 930만톤을 기록하는 등, 지난 '92년부터의 8년간에 걸친 경기상승을 배경으로 올해도 1억 1,5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시멘트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8,500만톤까지 증가한 미국내 시멘트수요는 '91년 7,170만톤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증가를 지속하여 '96년 9,000만톤을 돌파, '98년 1억 310만톤에 이어 '99년에는 전년비 6.0% 증가한 1억 930만톤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91년의 저점에서 8년간 52.4%가 증가하였다. 민·관수별로는 우선 민수가 지난 8년동안 65.3% 증가한 4,960만톤을 기록하였고 관수는 41.1%가 증가한 5,530만톤으로 양쪽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향후의 시멘트 수요는 경제성장이 2001년 이후 2%대의 저성장을 전제로 할 때 2001~2002년에는 정체하겠으나 그 후 2003년 1억 1,690만톤, 2004년 1억 1,940만톤으로 신장할 전망이며 생산능력은 종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가 계속되어져 2003년까지 6개 공장신설 950만톤, 17개 공장의 설비개조로 990만톤 등 총 1,940만톤의 증설이 이루어져 동년말에는 1억 450만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99년에 비해 22.8%가 증가하여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지만 수요와의 차이는 여전히 커서 수입은 금년 3,000만톤에 달한 후 감소할 것이며 금년 이후에도 2,000만톤대의 고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쌍용, 신소재 사업 분사
(2000. 7. 4)

쌍용양회가 신소재사업인 페라이트 마그네트와 파인세라믹 분야를 분사해 쌍용 머테리얼을 설립했다. 새로 설립된 쌍용머테리얼은 자본금 200억원으로 출발했으며 이달중 국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 자본금을 400억원으로 늘린 뒤 내년에는 코스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은 1000억원 규모이며 연간 매출은 700억원이다. 쌍용양회는 양재균 전무를 쌍용머테리얼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해 경영을 맡기로 했다. 쌍용양회가 '91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생산을 시작한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자성소재로 그동안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15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다. 또 산업용 세라믹소재와 절삭공구 재료로 쓰이는 파인세라믹사업은 무기재료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첨단설비와 기술을 갖췄다는 것이 쌍용측의 설명이다. 쌍용양회는 4월 용평리조트의 분사에 이어 신소재사업부문을 독립시킴으로써 사업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시멘트와 레미콘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SOC 외자유치 청신호
(2000. 7. 6)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2000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및 하반기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총 2,097건, 57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로 145.0%, 금액으로 28.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중 이뤄진 투자건수는 작년 한해동안의 투자건수 2,103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제고로 투자저변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25억 300만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59.3%가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작년 동기보다 11.6%가 늘어난 32억 2,300만달러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전기 및 가스 7건 1억 5,800만달러, 건설업 10건 600만달러 등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참여등에 의한 투자가 전체의 93.3%를 차지, 대중을 이뤘으며 투자규모별로는 5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자부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띠 것으로 내다봤다.

소각재이용 인공골재 활용가능

(2000. 7. 10)

산업폐기물 소각재를 이용해 만든 인공골재의 물성이 우수해 건설재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학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소양섭 교수 등은 「산업쓰레기 소각재를 이용한 인공골재의 품질특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산업폐기물 소각재를 바인더와 혼합해 골재형상으로 성형할 경우 물성과 품질이 양호해 건설공사 기초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는 각종 슬러지 및 소각회와 매립이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처리대책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폐기물 소각재로 인공골재를 생산할 경우 친환경적인 건설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각재로 인한 지구환경문제나 지역환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각재 인공골재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멘트양이 감소하고 비중이 낮아지며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재의 형상이 모두 둥근 구형인데다 입도가 2.5~10mm로 나타나 콘크리트 2차제품 등 활용범위가 넓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도는 시멘트의 양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쇠석에 비해서는 각각 파쇄율 36~41%, 충격률 38~62%, 마모율 57~69%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표면의 닳음 저항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내년 개발

(2000. 7. 10)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 사업에는 공공 3조 1,711억원과 민자 1조 4,396억원 등 총 4조 6,107억원이 투입되며 우선 서귀포항 재개발 등 5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

역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는 등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법적지원을 위해 연내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대체,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모색키로 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를 오는 2010년까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개발방향으로 고유문화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산업, 첨단과학연구·교육산업, 1차산업 등의 육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5개 촉매사업의 우선 시행을 제안했다.

자기응력 시멘트 혼화재 개발

(2000. 7. 14)

러시아 콘크리트 과학연구소의 김 클레멘치 박사는 건설자재업체인 키라테크와 공동 연구 끝에 자기응력(self-stressing) 콘크리트 혼화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자기응력이란 시멘트 구조 내부에서 철근 등 보강재를 팽팽하게 당겨 주고 콘크리트를 압축시키는 힘을 말한다. 일반 콘크리트는 잦은 균열로 인한 내구성 문제가 고질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자기응력 혼화재로 한국 시장의 경우 수입단가가 높아 균열 방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자기응력 혼화재를 시멘트에 첨가하면 균열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방수가 이루어져 탁월한 내구성을 지니게 된다고 전했다. 키라테크는 자체 시험 결과 자기응력 시멘트가 일반 시멘트에 비해 2배까지 높은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허용

(2000. 7. 26)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부동

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자본금 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설립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단기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이나마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매각이 쉬워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도 구조조정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일, 드라이몰탈 사업 주력

(2000. 7. 31)

한일시멘트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드라이몰탈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2005년까지 전체 매출중 드라이몰탈의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높인다는 방침아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개척에 나선 것이다. 이는 드라이몰탈이 일반시멘트를 대체할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다 후발업체들의 가세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일은 우선 컬러 드라이몰탈 등 특수용도의 제품개발에 나서 공급 가능한 드라이몰탈 품목 수를 현재의 12종류에서 20종류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가정용 2.5kg짜리 소포장 제품도 1.5kg으로 줄여 수요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한일은 현재 연간 200만톤에 그치고 있는 드라이몰탈의 수요가 오는 2005년경에는 600만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드라이몰탈이 일반시멘트 수요를 대체하고 가정용 소포장 제품의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부동액 이용한 특수콘크리트 개발

(2000. 7. 31)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천교수 연구팀은 콘크리트에 설탕을 일정 비율로 섞어 양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KS 규격상 레미콘 제작에서 타설까지 시간이 90분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에 개발된 콘크리트의 경우 양생시간을 2~4시간 가량 지연시킬 수 있어 산간지역이나 섬지역의 콘크리트 공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서 일반콘크리트와 설탕콘크리트를 차례로 타설할 경우 양생과정이 2~3단계로 조절돼 양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화열 발생을 분산, 균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팀은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부동액이 물의 어는점을 낮추는 점에 착안, 일반콘크리트에 부동액을 섞어 어는점을 영하 4~5도까지 낮추고 열기 전에 굳도록 하는 방법을 실험중이며 실험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일반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들 특수콘크리트가 실용화될 경우 온도나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공사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업 IMF 위기 못벗어나

(2000. 8. 3)

통계청이 발표한 「99년도 건설업통계조사(잠정)」에 따르면 일반건설업 등 우리나라 4만9천여 건설업 영위업체들의 국내·외 공사 기성액(매출액)은 104조 9,8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일반건설업의 공사액이 지난해 57조 2,220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는데 머물

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에 비해 12.3%나 감소한 것이어서 건설산업이 여타산업과는 달리 외환 위기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건설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건설시장 진출 신규기업이 급증, 업체당 공사액은 21억 4,000만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4.7% 줄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평균공사액은 일반건설업이 130억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으며 설비공사업 14.0%, 전문공사업이 9.7%로 각각 줄어든 반면 전기와 정보통신은 각각 11.0%, 16.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의 비중은 54.5%에 그쳐 지난 '97년 55.2%, '98년 54.8%에 비해 해마다 감소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함안 드라이 몰탈 공장 인수

(2000. 8. 10)

한일시멘트는 동양메이저의 함안 드라이몰탈 공장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경남 함안에 위치한 이 공장은 연간 30만톤의 드라이몰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이로써 기존 생산 능력 120만톤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톤의 드라이몰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일측이 동양의 함안 공장을 인수하게 된 것은 일반 시멘트 제품을 대체할 건축자재로 부각되고 있는 드라이몰탈 부문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략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한일시멘트는 자체 브랜드인 '한일 레미탈' 상표로 출하되는 드라이몰탈 사업을 전략 사업의 하나로 확정하고 고품질 다양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애쉬, 콘크리트제조에 사용 가능

(2000. 8. 14)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쉬를 보통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해도 설계기준강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김

희성 연구원은 콘크리트학회에 기고한 「주물공장 플라이애쉬를 혼화재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적 성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콘크리트에 주물공장 플라이애쉬를 20%까지 대체했을 경우 설계기준 강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주물공장의 부산물로 배출되는 플라이애쉬의 처리문제와 관련,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측면에서 건설재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주물공장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쉬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포졸란 활성도가 증가, 조기강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블리딩이 작은 시멘트제품 및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중도 높아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쉬보다 단위중량의 감소를 줄이고 보다 밀실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고로슬래그 사용 콘크리트, 성능우수

(2000. 8. 21)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하면 보다 경제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대학교 윤재환 교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고로슬래그 콘크리트는 저발열, 장기강도 증진, 수밀성 내약품성 내구성 강화, 알칼리·골재반응 억제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국내 D사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미분말 고로슬래그를 이용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재령 14일 이후부터는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보통시멘트 콘크리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물결합비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떨어지는데 재령 7일에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가 낮고 치환율이 높을수록 압축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향후 성능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시멘트 품질 좋아졌다

(2000. 9. 4)

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경인레미콘조합이 쌍용양회, 동양메이저 등 국내 7대 시멘트업체들의 제품을 수거, 요업기술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평균 388 kg으로 KS 기준치인 290 kg을 34%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압축강도가 평균 9.9%나 높아진 것으로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대시멘트의 경우 강도가 지난해의 330 kg에서 올해는 403 kg으로 22.1%나 상승, 품질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산 시멘트의 강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레미콘의 품질관리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시험결과 산화마그네슘, 삼산화황, 강열감량 등 화학적 성분도 모두 KS 기준을 만족했으며 특히 강열감량은 대부분이 1.0~2.0%로 기준치(3.0%)를 크게 밑돌아 시멘트의 입도분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강열감량이 0.60%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전재로 석회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이처럼 크게 향상된 것은 레미콘등 수요업체들의 끊임없는 품질개선 요구와 생산업체들의 설비개선, 인력충원 등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주택투자비중 10년내 최저

(2000. 9. 5)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투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8년 이후 처음으로 5%대 미만으로 추락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1년 한때 9%에 가까웠던 주택투자비중이 작년에는 4.5%로 떨어져 지난 '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교부는 지난 '90년대 초반 7~8%대를 유지하던 주택투

자비중이 후반기들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택보급률이 93.3%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4.5%의 투자비중은 매우 미흡한 수치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난 '90년 이후 매년 60만가구 내외의 주택을 건설해 와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기는 했으나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령가구 및 독신가구의 증가로 작년말 현재 1,198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모두 1,118만 1,000가구로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울들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 등에 대한 주택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SOC 확충, 400조원 소요

(2000. 9. 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지역의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이 입지할 북한지역의 공단조성과 교통망정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북한지역의 모든 사회간접자본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통일비용의 약 50%인 40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동호 북한경제팀장은 초기단계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일부분을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민자를 유치하거나 북한의 인력과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북한측의 비용부담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평양등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국자본과 권소사업형태의 투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소요액을 19조원에서 72조원 규모로 추정하였다.

시멘트 장기적 남북경협 가능성

(2000. 9. 18)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공동선언에서 나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계획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 서해안공단 및 금강산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 미국 일본 등 서방기업의 대북진출 등이 기대됨에 따라 시멘트산업의 증장기적 남북경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시멘트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공장건설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시의 건설수요 폭증에 대비, 남북한 협작을 고려해 불만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북한내에 새로 공장을 짓기보다는 현장기술 지도 및 기술협력, 노후시설 개체를 통한 가동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동부지역의 순천, 상원, 해주시멘트 공장 등이 유망한데 이곳은 수송이 쉬운 남포항 해주항 등이 입지해 있어 인천항으로의 운송도 용이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시멘트산업은 물류비 비중이 높고 공해를 유발한다는 특성이 있어 지금 당장 경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남한의 시멘트 수급이 주택보급률 향상 등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경협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착공

(2000. 9. 18)

꿰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와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18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법·사법·행정 3부 요인, 전직 대통령, 실향민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이 먼저 착공하면 북한도 곧 뒤따라 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북측도 금

명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의선 복원 기공식은 민족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경의선 복원은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뢰 제거 작업을 통해 동족상잔의 상처를 지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은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인 한준기씨가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은 ‘염원의 기차’를 타고 가설 철로를 따라 북녘으로 달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절정을 이뤘다. 경의선 철도 남측 복원구간은 문산역~장단역간 12km, 도로신설 구간은 임진강 통일대교~장단간 6km이며 1년간 공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한라, 고강도콘크리트 개발

(2000. 9. 23)

라파즈한라시멘트는 건축업체인 보기스, 화학전문그룹인 로디아사와 공동으로 고강도 콘크리트(제품명 「덕탈」)를 개발하였다. 이 콘크리트는 내부에 유기섬유와 금속섬유가 결합돼 있어 철근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고 있어 시공비와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축물의 부피도 줄일 수 있다. 덕탈은 교각, 터널, 건물건축 등 토목공학 여러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는 중규모 교각과 금고실, 지반유지 구조물, 파이프, 위험물질 용기, 냉각탑과 같은 고압축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다. 한라측 관계자는 “신제품은 내산성이 우수하고 탄화물이나 염화물 황산염의 침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마모 저항성은 천연 암석과 비슷한 정도”라며 “시공현장에서 타설과 주입, 배출등의 활동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가 끝난후 외관이 미려한 장점도 있어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멘트 몰탈 단면수복보수공법

(2000. 9. 25)

교량이나 복개구조물등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의 공기를 단축시키고 내구성도 뛰어난 콘크리트 보수공법이 개발됐다. 중앙크리텍은 시멘트몰탈을 공사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특수제작된 노즐을 통해 고압으로 분사하는 고압습식 스프레이방식에 의한 MDF(Macro Defect Free) 시멘트 몰탈 단면수복보수공법을 개발,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이 공법은 기존 보수공법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던 미장단면보수공사를 자동화스프레이로 대체하고 교량용, 하수암거용, 터널용, 건축물용 등 용도에 따라 제작된 분말형 몰탈을 사용하고 있어 공사비절감과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콘크리트 보수부위의 단면 복원에 초벌, 충전, 마감의 3단계 고압스프레이 분사를 채택해 콘크리트입자 사이의 기공제거를 통한 품질향상도 가능하다. 중앙크리텍은 구조물의 종류와 열화원인에 따라 특수배합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품질관리는 물론 보수된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철근이나 강선, 와이어메쉬 보강후의 단면수복보수공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北 SOC부족이 경험애로

(2000. 9. 26)

전경련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등 4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북경협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진행중인 기업은 4.7%인 21개사에 이르고 향후 사업을 계획중인 기업은 13.4%인 60개사로 조사돼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22.8%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업검토를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36.7%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등 남북경협 관련 제도미비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철도와 도로 등 북한내 SOC미비(21.2%)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48.5%)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됐으며 남북철도연계 및 전력 송전 등을 포함한 북한내 SOC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3%를 차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내년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2000. 9. 28)

한국경제연구원은 「4/4분기 및 200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여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4분기의 7.5%에서 4/4분기에는 5.3%로 뚝 떨어진데 이어 내년 1/4분기에는 다시 4.6%로 내려갔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200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8.5%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하지만 내년 2/4분기부터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국내 구조조정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커브를 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경제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큰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4%에 비해서는 1.4%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총 70억달러에 그친데 이어 내년에도 수입이 수출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흑자규모도 13억 5,0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말 1,110원대를 유지하고 내년중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예금대지급용에 한정해 공적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탕넣으면 콘크리트응결 지연

(2000. 10. 2)

청주대학교 한천구 교수는 「초지연제 종류 및 혼입률 변화에 따른 시멘트 몰탈의 응결 및 역학적 특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설탕등 당류를 혼화제로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수십일까지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따라서 당류 초지연제는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구조물 이음부위의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 타설, 압축시공에 따른 이음부 균열억제, 매스콘크리트 시공시 수화열에 의한 균열 저감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조된 콘크리트를 산이나 바다 등 외지에 있는 현장으로 장시간 수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현장 등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실험결과 초지연제로 당류를 사용한 몰탈의 응결시간은 혼입률이 높을수록 비약적으로 증대, 혼입률 0.3% 이하에서는 2~10일, 0.6%에서는 20일 이상 유동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교수는 콘크리트의 초지연제로 글루콘산 슈크로스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반면 슈크로스와 성분이 같은 설탕을 사용할 경우 레미콘 1㎡당 원가는 300원이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페레미콘처리, 신사업 부상

(2000. 10. 2)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페레미콘 처리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쯤된 페레미콘 및 폐콘크리트가 지난 달부터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업종이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크러셔, 압쇄기, 로더 등의 장비를 갖추고 페레미콘 처리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처리업체

의 경우 다이아몬드와이어쏘 등의 첨단장비와 40~50대의 운반용 트럭을 도입, 레미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는 업체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1개 레미콘 공장당 월 300~350톤의 페레미콘이 발생하며 연간 시장규모는 4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페레미콘 처리를 둘러싼 건설기물 처리업체간 영업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페레미콘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멘트업계 경영안정화 주력

(2000. 10. 2)

시멘트업계가 경영 안정화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외자유치, 온라인사업 진출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쌍용양회, 동양메이저, 한일시멘트 등 양회업체들은 내수부진에 따른 수익성을 개선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거나 인터넷·벤처사업에 진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쌍용양회의 경우 일본 태평양시멘트와 3억 5,000만 달러의 지분투자 유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키로 했다. 쌍용은 이번 외자유치 성공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막바지에 접어든 구조조정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특히 쌍용은 태평양측과 총 5,500만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에 대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내수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제시장에서도 홀더뱅크, 라파즈, 시멕스 등 세계 굴지의 시멘트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남북경협 확대에 따라 특수가 기대되는 북한시장 진출시 유럽계 메이저회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쌍용은 그룹차원에서 시멘트와 무역건설 등 주력사업에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포털 사이트도 구축하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인터넷 환경

아래서 각 사업부문이 경영을 책임지고 벤처회사를 발굴 투자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 벤처투자부문을 신설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한일시멘트도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시멘트업체들이 외자유치와 인터넷·벤처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비용절감 수출 확대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한다에 따른 신규 수입원 창출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시멘트의 수요가 정체를 보임에 따라 사업부문을 조기에 첨단 정보화 부문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획예산처, 재정적자 내년 1조원 추정 (2000. 10. 6)

정부의 재정적자가 내년까지 5년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이나 적자폭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예산처가 5일 전망한 내년 통합재정수지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와 공공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재정적자가 내년 1조원으로 올해 10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통합재정은 지난 '97년 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98년 18조 8,000억원, '99년 13조 1,000억원, 올해 10조원으로 4년째 적자가 누적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내년 재정적자폭의 축소가 재정증가를 성장률보다 낮게 잡았고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올해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크게 줄인데다 국민연금의 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콘크리트 등 100% 재활용 (2000. 10. 11)

일본의 건설성등 6개 성청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등 3개 품목에 대해 직할공사에서의 최종처분

량을 2005년도까지 제로로 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건설·운수·농수·후생·통산·환경등 6개 성청은 이 목표안을 건설리사이클법(건설공사에 관계된 자재의 재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방침으로 정해 10월 중순 일반에 공표, 11월 시행하기로 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목재의 3개 품목은 직할공사에서 이미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성 등은 2005년도까지 직할공사에서의 최종처분량을 제로로 억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품질에 결함이 있는 폐목재의 재활용기술과 중간처리·리사이클시설의 부족등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 이 법에서는 리사이클에 관한 비용에 대해 발주자가 비용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성은 이 때문에 직할공사의 경우에도 예정가격에 반영시키는 등 공공발주자측이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로슬래그, 콘크리트 동해방지 (2000. 10. 23)

충남대학교 김무한 교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고강도콘크리트의 내동해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고로슬래그가 동해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콘크리트 시공의 합리화 및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김교수는 논문에서 고로슬래그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높이고 스케일을 줄여주는데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그러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양생방법, 특히 건조에 의해서 내동해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화가 이뤄질 수 있는 초기양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충분한 내동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량 3.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혼입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포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물결합재비·혼입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0.03~0.1mm 정도의 미세한 기포를 증가시켜 내동해성을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민자 SOC 환차손 국가 재정서 보전키로 (2000. 10. 26)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위한 민간의 투자제안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민간사업 주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사업 제안서 접수 15일 이내에 사업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제안서 반려가 되도록 명문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낸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라해도 제안자 동의없이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공고하더라도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은 공고내용에 담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SOC 사업을 벌이는 주무 관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 민간사업자를 2인 이상 지정토록 해 경쟁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당초 예정대로 현재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했다. 또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대통령 “서해대교 밝은경제 약속” (2000. 11. 10)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오후 충남 당진 행당동에서 열린 ‘서해대교개통식’에 참석, “서해대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 모두의 편익을 증진

하고 서해안 시대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다리”라면서, 건설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대통령은 치사에서 “7년여의 대역사 끝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아홉번째인 아리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 교량 기술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쾌거로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세계 건설시장 개척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서해대교 개통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목포 대불공단에 이르는 거대한 공업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천, 변산반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관광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내년 말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경부선 축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의 안산, 서천, 당진 등이 평택항과 군산항으로 연결되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출콘크리트 적용 건물 늘어 (2000. 11. 13)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출콘크리트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출콘크리트가 도입된 이후 고속전철과 지하철 역사등 진동이 심한 구조물과 차분한 이미지를 주는 건물, 예술관련 건물,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별장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90년대 초에는 주택과 사무시설, 교육시설, 전시시설, 연구시설에 한정돼있던 노출콘크리트가 90년대 후반에는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돼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전국에서 매년 10~20건의 건물에 꾸준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거푸집 표면재의 광택을 콘크리트 표면에 전사시켜 대리석과 같은 치밀하고 매끈한 질감을 표출시키는 광택 노출콘크리트도 적용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광택 노출콘크리트는 고미분말 무기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회색이나 밝은 회색을 사용.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양, 삼척공장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2000. 11. 14)

동양메이저 삼척공장은 키 큰 쿨러(냉각기)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여, 현재 가동중인 보일러의 부하를 대체할 폐열회수 보일러를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고 있다. 4호 키 큰 쿨러와 5호 키 큰 쿨러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이 보일러를 가동하면 현재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B/C유 전량(연간 약 250만 리터)을 대체할 수 있어 연간 약 5억원 이상의 연료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회수되고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폐열은 적당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 외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폐열회수 보일러의 설치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토공, 수도권 3곳 신도시 건설 (2000. 11. 16)

오는 2002년부터 용인시 기흥읍, 용인시 수지읍, 양주군 주내면등 수도권 3곳에 5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난해소를 위해 용인 영신지구 58만 5,000평, 용인 보정지구 59만 3,000평, 양주 주내지구 50만 5,000평등 수도권 3곳에 총 168만 3,000평의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토공은 이를 위해 작년 이들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했으며 영신·보정지구는 올 1월에, 주내지구는 10월에 주민공람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현재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내년에는 예정지구지정건이 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정지구로 지

정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서둘러 오는 2002년부터 택지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지구는 모두 서울로부터 3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토공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들 지구의 개발에 기존의 산지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구릉지개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석탄재 이용한 콘크리트 개발 (2000. 11. 18)

석탄재를 이용한 콘크리트가 일본에서 개발됐다. 타케나카공무점(竹中工務店)과 전원개발 등 6개사로 구성된 「녹화콘크리트그룹」은 석탄재를 효율적으로 활용,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면서 모양과 같이 식재도 가능한 「녹화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콘크리트의 조골재, 시멘트 페이스트, 충전재, 표층기반재로 활용한 것이다. 조골재를 저알카리성·고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로 굳혀 공극률 25~30%, 두께 15~30cm의 연속공극경화체와 보수성·보비성이 풍부한 유기질재료와 비료·종자등을 혼합해 두께 2~5cm로 뿔칠, 표층기반의 2개층으로 구성한다. 이 콘크리트는 또한 모양과 같이 식재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식물은 콘크리트의 공극에 뿌리를 내려 충전재로부터 영양분을 흡취해 생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석탄재는 석탄연소소에서 빠져나와 배기가스 증으로 흡수되는 입자가 적은 플라이 애쉬는 시멘트에 혼합하고 연소로의 밑바닥에서 배출된 입자가 큰 크링카애쉬는 조골재로써 이용한다. 타케나카공무점은 이 결과 시멘트의 40%, 조골재의 10%를 석탄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 太平洋·三菱Materials社 베트남 합작공장 준공 (2000. 11. 20)

태평양시멘트와 三菱Materials사가 공동출자하여

베트남 시멘트공사와 합작으로 건설을 진행해온 기손 시멘트공장이 완공되어 지난 11월 13일 타인호 아성 현지에서 일본 및 베트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기손시멘트공장은 베트남 및 아시아의 경제가 일시적인 정체로부터 다시 발전 궤도에 올라 시멘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 시작되었지만 베트남 경제발전에 공헌함과 함께 수익구조를 안정시켜 가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기손 시멘트의 프로젝트는 '93년의 FS(기업화조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95년 8월 합작회사를 설립, '98년 2월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공,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7월에는 생산을 개시하여 북부로 출하하였으며 8월에는 호치민시의 터미널로 탱커에 의한 해상도 개시되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동 공장은 하노이 남쪽 약 200km의 타인호아성 기손지구에 있고 키른능력은 연산 180만톤(시멘트 214만톤)이다. 베트남 최대 수준으로 유일의 임해 공장이며 5단 사이클론의 NSP 키른을 위시해 원료, 석탄분쇄에 수형밀, 마무리에 예분쇄기, 고성능 분급기를 도입하여 중앙제어실의 DCS에서 일괄 관리하는 등 최선에 설비가 도입되었다. 석회석광산은 가채광량이 2억톤 이상되는 등 풍부하고 양질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굴된 석회석은 파쇄후 10.5km의 장거리 벨트콘베이어로 공장에 반입되며 연료는 북부의 홍게이탄(무연탄)이 100% 사용되며 선박으로 공장에 수송된다. 항만설비로는 4만톤급의 선박접안이 가능하며 여기에 부설된 벨트콘베이어로 벌크·포장시멘트를 선적하는 한편, 석탄 및 일부 부원료의 반입도 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3억 7,300만달러이며 자본금 1억 410만달러, 출자비율은 일본측 65%(이중 태평양 70%,三菱 30%), 베트남 시멘트공사 35%이다. 나머지 2억 6,890만달러는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협력은행(舊 수출입은행)등의 차입으로 충당하였다. 베트남의 시멘트 수요는 경제의 정체로 일시 신장세가 둔화됐지만 지난해 1,090만톤(전년비 8.0%증가)에서 금년은 1,350만톤(23.9%증가 예상)으로 급증하였

으며 이후에도 연 10%정도의 신장이 예상된다. 기손시멘트는 베트남내의 판매만으로 풀생산할 계획이지만 조기흑자화를 목표로 판매노력과 아울러 효율화등에 의한 수익구조의 안정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체분말방수재

(2000 11. 20)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성능 향상은 물론 중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분말방수재가 개발돼 본격 양산되고 있다. 장산방수산업이 개발한 PPS구체분말방수재는 불용성 화합물인 규산칼슘 수화물을 생성, 콘크리트 내부의 모세공극을 채움으로써 투수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발수성의 고급 지방산칼슘이 흡수작용을 감소시키며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개선, 강도증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방수기능이 뛰어난데 따라 이산화황이나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는 물론 바닷가 염분으로 인한 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공공공사 발주액 33조원 규모

(2000. 11. 28)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공공발주기관 수요전망」에 따르면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지난해 27조 7,504억원에서 올해는 29조 3,200억원으로 5.6% 증가하고 내년에는 11.7% 더 늘어난 32조 7,401억원에 달하겠으나 2002~2003년에는 발주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연은 이처럼 공공시설물의 발주규모가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은 신공항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월드컵경기장등 대형 국책사업의 주요 공정이 대부분 2001년까지 마무리되는데다 정부가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신규 대형공사의 발주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건산연은 부문별로 토목공사의 경우 지난해 18조 3,708억원을 기록했던 발주규모가 올해 19조 3,912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21조 6,870억원까지 증가하겠으나 2002년에 들어서는 다시 19조 9,36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수자원관리시설과 주택 및 산업단지 공사 등이 활기를 띠면서 토목공사 발주규모가 21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동양, 초당관광지 골프장 건설 기공식 개최 (2000. 11. 28)

동양메이저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초당관광단지 현지에서 노영인 사장과 이수일 부사장을 비롯하여 김일동 삼척시장과 박병근 시의장, 동양레저 이찬석 사장 등 관계인사와 주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관광지 골프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초당관광지 골프장은 7백억원의 예산으로 삼척시 근덕면 일대 32만 9,000에 18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동양레저가 시공관리를 맡아 200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초당관광지 골프장은 영동 남부권 최초의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서 삼척 세계동굴박람회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명실공히 강원 제일의 관광 명소가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영인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광산 개발에 앞장서 삼척시 관광자원 개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업 이윤의 지역환원이라는 의미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년 국민임대주택 1만호 더 늘리기로” (2000. 12.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부문 투자 예산 증액과 국민주

택 1만가구를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번에 규모를 1만가구 더 늘려 총 2만 5,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2,364억원이었던 예산을 3,102억원으로 738억원 늘렸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설비 가운데 30%를 지원해 서민에게 10~20년 동안 시중 전세금의 60~70%로 싸게 빌려주는 소형 주택을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더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만가구 규모로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을 5만가구 더 늘려 2003년까지 총 1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분 1,000억원을 증액해 근로자 주택 전세·구입자금 지원한도를 당초 7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프라 펀드」 본격 운용, 한·캐나다 공동출자 (2000. 12. 1)

국내 5개 금융기관과 캐나다의 신탁기금이 공동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펀드가 30일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2,200억원을 투자하는 국내 인프라펀드와 캐나다의 퀘벡투자신탁기금(CDPQ)이 1억달러를 출자하는 역외 인프라펀드가 한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이 투자펀드는 앞으로 수송·통신분야에 역점을 두고 투자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프라펀드는 최근 정부의 투자심사가 끝난 대구~대동 고속도로 등 10개 민자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펀드에는 산업은행이 1천억원, 한빛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종금이 각각 3백억원씩 출자했다. 캐나다의 CDPQ는 이번 투자를 위해 카리브연안의 영국령 케이프만군도에 먼저 펀드를 구성한 뒤 국내로 진출하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국제금융시장에서 1억~1억 5,000만달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 설비투자 3.7% 감소 (2000. 12. 5)

산업은행은 5일 「2001년 산업설비투자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내수와 수출부진, 미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 경제전망 불투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 설비투자규모는 올해대비 3.7% 감소한 47조 9,423억원으로 '99년 증가세 반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산은은 내다봤다. 투자 감소의 주 요인으로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경기전망 불투명이 27.6%를 차지했고 수요부진이 21.2%, 자금조달난 14.4%를 차지했다. 자금조달 시장의 불안과 관련, 산은은 현재 국내기업들이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금년말 이후 2001년까지 80~90조 규모의 만기도래 회사채상환 부담이 고조돼 있어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금조달은 내부조달비중이 69.7%에서 66.9%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회사채 및 금융기관 차입이 올해 대비 각각 1.2%포인트와 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은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분양 증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2000. 12. 10)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94년부터 6년 간 아파트값과 미분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하락기에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상승기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95~'97년 미분양 물량은 15만 2,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가격이 폭락한 '97~

'98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1만 4,000가구나 늘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값이 지난해보다 2% 남짓 오르면서 미분양 물량은 9,000가구 정도 줄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1,000가구. 아파트값 하향곡선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비춰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 신항만·목포 신외항 이달말 착공 (2000. 12. 11)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과 함께 국내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하나인 총사업비 5조 5,0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만과 6,800여억원 규모의 목포신외항이 이달중 잇따라 착공된다. 부산신항 1단계 사업은 2008년말까지 민자 2조원 등 3조 6,000억원을 투입,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대형선박 9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 9선석과 93만평의 복합물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40만 TEU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갖게 된다. 해양부는 현재 부산항이 물동량 증가로 체화 현상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6선석은 2007년까지, 3선석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또 1단계 사업을 포함해 2011년까지 5조 5,000억원을 들여 2단계 공사까지 완전 마무리되면 컨테이너부두 24선석, 배후부지 259만평을 갖추므로써 부산항이 대만 카오슝항을 제치고 싱가포르 및 홍콩항에 이어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연간 320만명인데다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부산·경남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기업체감경기 IMF 때보다 위축 (2000. 12. 12)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993개 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조사한 「분기별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경기실사지수(BSI)는 전국 평균 63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기간중인 98년 평균인 67.25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상용차, 새한, 우방퇴출과 대우차 부도여파가 가장 컸던 대구 및 인천지역 기업들의 체감지수는 각각 37과 55로 나타나 72년 상의 BSI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종만을 조사한 수치여서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상의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럼 대우, 현대사태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장래의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대상기업의 49.5%가 소비·투자축진 등 내수진작과 구조조정 조속한 완료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성장 5.9%로 둔화 발표 (2000. 12. 13)

산업연구원은 「2001년 경제전망」에서 경기가 올해 8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올해 9.2%에서 내년 5.9%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내 경기 둔화로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하락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7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소비지출은 소비 둔화세가 지속돼 6.3%에서 3.7%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경제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39.0%에서 13.5%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면서 올해 4.0% 감소에서 내년 2.0%의 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재물가는 원유가 강세와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등으로 3.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5.1%까지 둔화될 것”이라며 “과감한 구조개혁의 추진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민자고속도로 속속 건설 (2000. 12. 15)

건설교통부는 대구~대동간을 비롯 서울외곽(일산~퇴계원)과 천안~논산등 총 투자비 6조 6,764억원 규모의 3개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초 착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의 경우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민자사업자들의 자금조달애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으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상향조정 및 정부지원사항 사전제시, 운영수익보장범위 확대(80→90%),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지원 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초 착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대구~대동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동대구JC(경부고속도로)~김해시 대동JC(양산~구포고속도로)간에 총 투자비 2조 6,493억원을 들여 연장 82km의 4차선 고속도로를 오는 2006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현대산업개발등 9개사가 사업참여자로 돼 있다. 또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간 36.3km에 2조 2,781억원을 투입, 8차선 고속도로를 오는 2006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9개사로 구성된 서울고속도로(주)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 천안JCT~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논산JCT간 81km에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1조 7,490억원이 투입되며 12개사로 구성된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가 사업자로 참여한다.